

기름값 천정부지... 정유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힘 보탠다

기름값 상승, 실적 영향 제한적 분석
계절적 수요로 인한 수익 개선 기대
“정부 정책 협조적으로 나설 것”

‘유류세 인하율 축소’가 지난 1일부터 적용되면서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돼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다. 당장 소비자들은 국내 기름값이 상승한 것을 체감하고 있지만 정유업계의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 축소가 적용된 데다 국제유가 상승이 겹친 결과다.

26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공식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33.92원으로 전주 대비 4.81원 상승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4.8원 상승한 1천633.9원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스

이달 셋째 주 경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8.16원 오른 1467.68원을 기록하며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정유사들은 이러한 기름값 상승세가 기업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른 기름값에 직영 주

유소나 가맹점 등 현장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뜸해져 석유제품 판매량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실질적인 판매구조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유업계는 계절적 수요에 힘 입어 4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

는 분위기다.

올해 3분기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에스오일·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는 업황 둔화의 직격탄을 맞아 나란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으나 겨울철 난방유와 연말 항공유 등의 수요 증가로 수익성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42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에스오일도 3분기 영업손실 4149억원을 냈다. 정유부문의 영업손실은 5737억원으로 집계됐다. HD현대오일뱅크 역시 영업손실 2681억원을 기록했다. GS칼텍스는 352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업계도 협조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아 더 뉴 EV6 GT 외장.

기아 ‘더 뉴 EV6 GT’ 계약 개시

기아 고성능 전기차 ‘더 뉴 EV6 GT’의 계약에 돌입했다.

기아는 고성능 전기차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EV6GT의 상품성 개선모델인 ‘더 뉴 EV6GT’의 계약을 26일 시작했다.

더 뉴 EV6GT는 주행의 역동성을 높일 특화 사양을 새롭게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는데도 판매 가격은 이전 EV6GT 수준으로 동결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더 뉴 EV6GT의 전·후륜 모터 성능을 합산 최고 출력 448kW(609마력), 최대 토크 740Nm(75.5kgf·m)로 향상하고, 런치 컨트롤, 가상 변속 시스템(VGS)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84kWh(킬로와트시) 4세대 고전압 배터리 탑재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355km를 확보했다. /양성운 기자

고려아연, 호주 BESS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화’ 선정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양사 친환경 사업 협력 강화 “내년초 공급계약 체결 예정”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우군으로 꼽히는 한화그룹과 호주에서 친환경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 호주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를 선정할 것이다.

26일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아크에너지가 진행하고 있는 호주 최대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사업과 관련해 배터리를 포함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통합) 패키지 공급 업체로 한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고려아연과 한화는 2022년 9월 아크에너지와 한화임팩트 미국 자회사 HP

S글로벌 간 지분교환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한 바 있다. 작년 7월에는 그린수소 사업에 대한 공동검토 목적의 한·호 컨소시엄 출범을 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가고 있다.

이번 배터리 공급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고려아연과 한화그룹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사업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호주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BESS 시장을 함께 공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호주 주요 도시인 시드니가 위치해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2030년까지 기존 화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전력

을 12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력망 안정성 유지를 위한 2GW의 장주기 저장장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진행된 전기 인프라 건설 지원 프로그램 입찰에서 아크에너지의 리치몬드밸리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이 선정, 아크에너지는 지난해 12월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정부와 장기에너지서비스계약(LTESA)을 체결했다.

사업 개발은 아크에너지가 총괄하고 배터리의 설계, 구매, 시운전은 한화가 맡을 예정이다. 건설 공사는 내년 3분기에 시작해 2026년 중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LTESA 계약에 따

라 뉴사우스웨일즈 전력시장에 하루 8시간 동안 최대 275MW의 전력 용량과 2200MWh의 에너지 저장서비스를 14년간 제공하게 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내의 여러 기업의 기술력과 역량을 면밀히 비교한 끝에 최종적으로 한화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달 말부터 TF를 구성해 세부 조건을 논의한 후 내년 초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치몬드밸리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은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전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한화그룹과 호주에서 상업화를 하는 첫 사례로, 양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협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전선,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참가

송종민 부회장, 현장 진두지휘

대한전선이 글로벌 전시회에서 해상 풍력 분야의 경쟁력을 선보인다.

대한전선은 오는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APAC Wind Energy Summit) 2024’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은 국제 풍력 발전 행사로, 한국풍력산업협회(KW EIA)와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 C)가 공동 주관한다.

대한전선은 이번 전시회에서 해저케이블 턴키(Turn-key)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현재 2단계 공사를 진행 중인 해저케이블 1공장과 최근 당진 고대부두로 부지를 확보한 해저케이블 2공장의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용 CLV 포설선 ‘팔로스’호의 모형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와



대한전선의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전시장 조감도. /대한전선

함께 지난 2009년부터 국내외 프로젝트에 공급한 해저케이블 공급 실적과 당진 고대부두에 조성하게 될 국내 최대 규모의 케이블 생산 클러스터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시회 기간동안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전시장을 방문해 글로벌 발전사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LS마린솔루션, 해상풍력 케이블 시공 완료

전남해상풍력1단지 해저케이블 연결

LS마린솔루션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LS마린솔루션이 ‘전남해상풍력1단지’의 해저케이블 시공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LS마린솔루션의 첫 해상풍력 시공 사례다.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총 96MW(메가와트)의 전력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2025년 3월 시운전을 마친 뒤 상업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2035년까지 8.2GW(기가와트) 규모로 확대될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

LS마린솔루션 관계자는 “전남해상

풍력 2·3단지 등 후속 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인 대만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최장 해저케이블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LS마린솔루션은 최근 LS전선과 함께 약 500MW 규모의 충남 태안해상풍력 단지의 해저케이블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급을, LS마린솔루션은 시공을 맡아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LS마린솔루션은 해상풍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SOV(해상풍력 지원 선박)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시공 선박 신규 건조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에코프로에이치엔

우리사주 청약률 113%

에코프로에이치엔 임직원들이 유상증자 청약 수요조사에서 모집 수량을 웃도는 물량을 신청해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청약 신청률이 113.2%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사주조합 배정 주식 수는 전체 유상증자 규모(567만주)의 20%인데 이를 넘어서는 청약 수요가 확인된 것이다.

이번 유상증자 규모는 총 2370억 원(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한 자금을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